



# 대화합으로 금강 법향 이루리

## 신계사(神溪寺)는

금강산 4대 명찰 중 하나  
 보은 스님 창건  
 한국전쟁 때 소실  
 11월 대웅전 복원



강원도 고성군 신북면에 위치한 신계사는 유점사, 표훈사, 장안사와 함께 금강산 4대 사찰 가운데 하나다. 신라 법흥왕 5년(519년) 보은 스님에 의해 창건됐다고 전해진다. 이후 김유신과 그의 부인 등이 신라시대에, 법인 스님과 묘정(妙淸)이 고려시대에 중수한 기록이 남아 있다. 이후 거해(擧海·1709~1782), 낭오(朗煦·1780~1841), 탄중(彈鍾·1830~1894) 스님들이 신계사에 주석해 법석을 열었다.

신계사는 임석두 스님이 주석했던 1900년대 초반에만 20여동의 전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한국전쟁 때 폭격으로 모두 소실돼 현재는 삼층석탑 1기만이 남아 있다.

이에 조계종은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신계사 복원불사를 추진해 왔다. 2002년에는 조불련과 북경에서 회담을 열고 신계사를 비롯한 북측 지역의 불교문화재와 유적지 복원, 남북 불교 중흥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조계종은 올해부터 2007년까지 4년간 복원불사를 진행하고, 85억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11월이던 대웅전이 가장 먼저 복원된다.

대웅전, 만세루, 요사채 등 신계사 건물이 복원되면, 금강산에 불교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명소가 탄생하는 셈이다.

(사진은 만물상 모습)



금강산 신계사 복원불사 착공식에서 남북 관계자들이 반아침경을 봉독하고 있다. 삼층석탑을 뒤로 하고 한명씩 섞여 선 남·북 스님들의 모습 자체가 남북 불교 교류의 상징이다.

## 금강산 신계사 복원불사 현장

신계사에 들어와 (入神溪寺)

바다 위 떠돌며 이름난 곳 찾아다니다 (海上名區跌宕餘)  
 산속 좋은 경치 찾기 처음 (山中勝景探初)  
 한가히 찾는 곳마다 아름다운 흥취 (閒眺 到處多佳興)  
 덧없는 세상 한번 스침에 산수로 즐기리 (浮世一遊計不疎)  
 송환기(宋煥箕 1728~1807)

이 시를 읊은 시인처럼 금강산을 찾는 이 마다 신계사를 노래할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았다. 한국전쟁 폭격으로 삼층석탑 1기 만이 옛 절터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신계사가 드디어 역사적인 복원에 들어갔다. 남측 조계종(총무원장 법자)과 북측 조선불교도교연맹(위원장 박태하·이하 조불련)은 4월 6일 금강산 현지에서 신계사 대웅전 복원불사의 첫 삽을 찼다.

2004년 4월 6일 정오. 금강산 외금강 신계전을 따라 멋들어진 금강송(金剛松)이 줄지어 서 있는 산길을 오르다보면 신계사 터가 나온다. 1500개의 오색연등이 걸린 신계사 터에는 북측 조불련 관계자들이 먼저 나와 남측 관계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검은 옷에 붉은 가사를 걸친 황병준(조불련 부위원장), 심상진(조불련 서기장) 스님과 조불련 관계자 50여명이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신계사 복원불사가 여법하게 이뤄지길 바랍니다.”  
 차에서 내린 종상(불교사 주지), 보선(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도후(심원사 주지), 미산(총무원 사회부장), 탁연(총무원 문화부장), 학단(민족공동체추진본부 상임집행위원장) 스님은 조불련 스님들과 이미 여러 차례 만난 듯 밝게 인사를 건넸다.

삼층석탑을 뒤로 하고 한 명씩 섞여 앉은 남·북 스님들의 모습 자체가 남북 불교 교류의 상징처럼 보여진다. 착공식은 법경(민족공동체추진본부 사무처장) 스님의 사회로 심상진 스님의 개식사, 종상 스님의

전점으로 소실되기 전 금강산 신계사 전경. 현재 유일하게 신계사 삼층석탑(사진 가운데)만이 남아 있다. 석탑에서 50m쯤 떨어진 신계사 당간지주(사진 오른쪽) 옆으로 “남아갈듯한 활각지붕으로 되어있어 시원하고 산뜻해 보이는 건물과 ‘삼층탑’이라고 새겨진 안내판이 보인다.



## 북측 조불련 관계자 50여명 마중 1500개 연등아래 남북 공동 시삽 종상 스님 “민족정신 되살리는 일” 황병준 스님 “북남 불자 공조실현”

봉행사, 현대인사 김고중 사장특보의 김윤규 사장 측사 대독, 리승환 스님의 축원문과 남북 대표단의 시삽으로 이어졌다.

종상 스님이 봉행사에서 “신계사 복원은 민족정신이 되살아나는 민족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밝힌 것처럼 전쟁의 폭격으로 잿더미가 된 신계사를 복원하는 일은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남북의 대화합을 이뤄내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조불련 황병준 부위원장도 “신계사 복원으로 북남 불자가 민족 공조를 실현해 하루빨리 통일을 앞당기길 바란다”며 신계사 복원의 가치를 설명했다.

실제로 신계사 복원은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이 힘을 모아 민족문화 유산을 되살리는 기념비적인 일이다. 특히 지난해 남북 학자들이 함께 시·발굴조사한 결과와 남아 있는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전통목조건축 양식으로 원형을 복원하게 된다.

또 금강산 4대 명찰 가운데 하나인 신계사가 복원되면, 금강산 관광객들은 ‘불법이 가득하다’는 금강산에서 불교를 직접 접할 수 있게 된다. <화엄경>에 나온 ‘바다 가운데 금강산이 있는데 법기보살이 항상 1만 2천명의 보살, 권속과 함께 머물며 설법하고 있다’는 글에서 유래한 금강산 1만 2천봉과 산세가 너무 험해 관음보살의 힘을 빌려 산세를 누그러뜨리려 했다는 관음연봉(觀音連峰) 등 금강산에는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맹 맹 대맹~”  
 착공식을 마치고 신계사 당간지주 사이를 걸어 나오는 길, 신계사의 종경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금강산=오유진 기자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02)720-8489**

**특별 기획안내** (호희 유림선으로 중국여행을...)

○ 출발일: 2004년 4, 5, 6월

1. 북경/백두산 7일(매주 화요일 출발) 69만원
2. 청도/태산/곡부/천불산(만물등) 6일(목, 토 출발) 40만원

**불교 성지순례 <중국 4대불산>**

1. 관음도량 - 보타산 / 낙가산 5일 79만원
2. 지장도량 - 구화산 / 황산 5일 79만원
3. 보현도량 - 야미산 / 낙산대불 5일 85만원
4. 문수도량 - 오대산 / 운강석굴 5일 69만원
5. 달라이라미의 성지 - 티벳/낙산대불 8일 169만원

■ 요급포함내역(공동여행)

- 포함사항: 왕복항공료, 호텔(4성급, 2인1실), 천일정 관광 및 식사, 차량료, 선박료, 인천공항세, 현지공항세, 관광진흥기금, 1억원 여행보험
- 불포함사항: 여권, 비자비, 현지 기사/가이드비, 개별비용 - 비고: 11명당 1명 무료, 10명이상 출발가능, 인솔자 동행

**고품격 여행과 윤년 제주도 삼사순례! 소원성취 방법법회를 최남단 마라도에서...**

▶ 일요일 출발 - 225,000원 ▶ 화, 목, 토 - 248,000원 ▶ 금요일 출발 - 289,000원

<요금 포함내역 및 특징>

왕복항공료, 관광 1급호텔 2박, 조식 2회, 중식 2회, 마라도 유람선, 마라도해상국립공원 입장료, 여미자, 퍼시픽랜드(돌고래, 바다사자쇼), 해미안 녹차/해수 사우나, 제주 10경 관광안내, 차량료, 여행자보험

<관광일정 - 일요일 출발 기준입니다>

제 1일	제주공항 도착 → 마라도 '기원정사' 방문 및 방법법회 → 오인 설복(설복차발 및 유지) 방문 → 호텔 투숙 및 저녁공연(저녁)
제 2일	호텔 아침공양 후 → 동양 최대의 식물원 '여미자' 관광 → 제주 최대의 해금강이라 불리는 '주상절리'를 관광 → 점심관광 돌고래, 바다사자의 환상적인 쇼 '퍼시픽랜드'를 관광 → 동양 최대의 사할 '양천사' → 밀감/버섯 농장 견학 '정방폭포'(혹은 천지연 폭포)를 관광 → 호텔 투숙 및 저녁 공연(저녁)
제 3일	해미안 녹차/해수 사우나(제주에서 가장 유명한 온천!!!) → 아침공양 → 시내에서 쇼핑 → '한라산 내 '신비의 도로' → '절물휴양림'에서 삼림욕!!! → '조형물 체험' 또는 '몽골리안 마상쇼' 관광 → 성당음악회를 관광 → 점심관광 → '통일불사리대법(교편사)' 방문 → 제주공항으로 이동 → 김포공항 해산

**50명 이상 단체는 별도의 일정(맞춤)과 가격을 드립니다!!!**